

/ 도내 기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 요진건설산업 15년째 1위 굳건

## 토목건축 분야

5,743억원 달해 전국 57위  
도내 유일 100위권 진입

원주 요진건설산업(주)이 토목건축 분야 시공능력평가에서 15년 연속 도내 1위를 유지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한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을 29일 공시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원주 요진건설산업(주)은 시평액 5,743억5,900만원으로 15년째 도내 토목건축 분야 1위를 지켰다. 특히 전국 57위로 도내 업체 중 유일하게 전국 100위권 안에 들었다. 다만 시평액 수준은 1년 전(7,915억3,500만원)보다 2,177억1,600만원가량 줄었다.

◇도내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 순위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체명	소재지	시공능력평가액
1	요진건설산업(주)	원주	574,359
2	에스지건설(주)	원주	123,350
3	신화건설(주)	강릉	116,159
4	현대아산(주)	고성	99,813
5	(주)효성	영월	94,225
6	(주)대건	춘천	89,379
7	(주)우일	강릉	87,359
8	정상종합건설(주)	원주	76,365
9	상리건설(주)	춘천	69,760
10	(주)대양	춘천	62,592

자료 : 대한건설협회 도회

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주택사업·대출규제로 민간 공동주택 분야 실적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주 에스지건설(주)(1,233억5,000만원), 강릉 신화건설(주)(1,161억5,900만원), 고성 현대아

산(주)(998억1,300만원), 영월 (주)효성(942억2,500만원) 순이었다. 도내 상위권 업체들의 시평액 수준도 1년새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에스지건설(주)과 신화건설(주) 시평액은 전년 대비 각각 7억7,600만원, 63억8,700만원 가량 떨어졌다. 도회는 정부의 SOC 예산 감축에 따른 도로·시설·건축 등 공공부문 수주 실적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풀이했다.

한편 업종별로 토목공사업에서는 평창 토진종합건설(주)(260억3,000만원), 건축공사업에서는 강릉(주)정환종합건설(242억1,000만원)이 1위에 올랐다. 조경과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요진건설산업(주)이 각각 910억7,200만원, 793억4,600만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 우량업체 떠난 전문건설업계 시평액 1.2% 감소

전국 100위권에 7개 업체  
전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도내 전문건설업계 평균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규모가 1년 새 1.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는 17개 업종 2,0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시공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한 ‘2018년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9일 공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전문건설업 전체 업종의 평균 시평액은 17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가량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경영·실적평가액은 각각 전년보다 3,200만원, 1,000만원 줄어든 8억3,400만원, 2억8,500만원으로 조사됐다.

도회는 일부 우량 전문건설사의 타사·도 본사이전을 주된 원인으로 풀이했다. 실제 2016년 도내 실적 상위권을 기록한 (주)대련건설, (주)삼우아이엠씨 등은 지난해 수도권으로 옮겨갔다. 또 올해 전국 100위권에

◇2018년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업종별 1위 업체 현황)

업종	상호	대표자	지역	시공능력(백만원)
실내건축	금강아트	박경근	강릉	9,115
토공	(주)제이에이치	양치호	춘천	20,489
습식방수	두타건설(주)	김성걸	강릉	8,379
석공	(주)기흥종합건설	신흥근	정선	5,354
도장	(주)양투카에스엘	김욱, 최창구	춘천	5,315
비계	(주)더원	전길표	원주	5,676
금속창호	(합)우진창호	양희복	원주	10,576
지붕구조	그린건설환경(합)	김영현	정선	3,698
철근	(주)진양	홍순희	춘천	13,722
상하수도	웰텍(주)	이성식	횡성	11,019
보링	(주)제이에이치	양치호	춘천	12,810
포장	대상이앤씨(주)	김용근	원주	15,641
수중	경진건설(주)	김성배	강릉	10,741
조경식재	(주)대덕건설	윤광희	고성	4,789
조경시설	(주)양투카에스엘	김욱, 최창구	춘천	7,344
강구조물	(주)효명이씨에스	한복희	원주	8,096
승강기	콰엘리베이터(주)	김월섭	원주	3,002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

오른 도내 업체 수는 강릉 경진건설(주)(34위), 원주 대상이앤씨(주)(54위) 등 총 7개로 전년(12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도회 관계자는 “대형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을 많이 받던 도내 우량업체들이 떠나자 시평액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라며 “전국 순위권 업체도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시평액 순위를 살펴보면 실내건축과 토공 분야에서는 강릉 금강아트(91억1,500만원)와 춘천 (주)제이에이치(204억8,900만원)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윤종현기자 jjong@





**강원경제인은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촉구한다!!**

강경연 '플라이강원 면허취득 여건조성' 세미나 참석 강원경제 단체연합회(회장:최돈진)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라이강원 항공사 면허취득 여건조성 세미나'에 참석했다.

## 도내 전문건설업계 시평액 감소 영세화 뚜렷

〈시공능력평가액〉

전년비 평균액 2200만원 줄어  
상위 100위권 12개사→7개사  
우수업체 타지역 진출 등 영향

올해 전국 전문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0위권에 진입한 강원도 전문건설업체 수가 감소하는 등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영세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2016년 도내 시공능력평

가액 실적신고 1~3위 우수업체들이 타 시도로 진출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평균 시공능력평가액이 줄어들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사업체의 실적과 경영, 기술능력 등을 평가한 지표다. 올해 도내 전문건설사의 평균 시공평가액(17개업종·2036개사)은 17억8200만원으로 전년(18억400만원)보다 2200만원(1.2%)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도내 전문건설사 12개사(16개 업종)가 전국 전문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위권에 포함됐

지만 올해는 7개사(7개업종)로 줄어들었다. 올해 전국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위권 도내업체 중 전국순위가 가장 높은 건설사는 강릉 경진건설이며 업종은 수중(수중 및 해저 시설물 시공)으로 전국 34위를 차지했다. 이어 원주대상이앤씨가 포장 업종으로 전국 54위, 원주 콤파스리베이터가 승강기 업종으로 전국 55위, 춘천 제이에이치가 보링(구조물 천공·보강재 압력설치 등) 업종으로 전국 66위, 춘천 양투카에스엘이 조경시설 업종으로 전국 70위, 속초 문화토건이 수

중업종으로 74위, 원주강산이보링으로 전국 79위를 기록했다.

도내 업종별 1위업체는 금강아트(실내건축), 제이에이치(토공·보링), 두타건설(습식방수), 기흥종합건설(석공), 양투카에스엘(도장·조경시설), 더원(비계), 우진창호(금속창호), 그린건설환경(지붕건조), 진양(철근콘크리트), 웰텍(상하수도), 대상이앤씨(포장), 경진건설(수중), 대덕건설(조경식재), 효명이씨에스(강구조물), 콤파스리베이터(승강기) 등이다. 신관호



정부,工期 연장 사유에 '폭염' 포함 법 개정 착수

# 공사비 보전 길 열려... 속타던 건설현장 숨통 트였다

## 폭염시 안전관리 개선 기대감도

정부가 폭염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조치가 나서면서 건설업체가 반색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건설공사 계약 유관 부처들은 폭염의 공기연장 사유 인정을 위한 재난안전법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6일 열린 폭염 관련 관계기관 추가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폭염을 법률상 자연재해로 추가하고,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움직임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폭염 종합대책 이행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달렸다.

공문에는 먼저 '건설현장이 속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발주기관별로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일시정지 등 적극 조치'가 명시됐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물 일시정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공사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반영해 공기연장 등 조치도 함께 지시했다.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공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관계기관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전 공사일시정지 등을 통해 안전위협 요소를 차단하고, 정성적 판단 사항인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5일 공사일시정지 및 공기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 진행률이 평소의 30~40%에 머물 만큼 최근의 폭염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공사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제도 및 계약조건의 개선도 조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손봐야 할 제도는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염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었다"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시안인지 등 구체적인 방침과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폭염으로 현장 운영에 답답함을 표했던 전국 건설현장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반기는 모습이다.

세종시의 한 공공발주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은 "그간 발주청에선 폭우와 폭설 등에 한해서만 공기연장 비용을 보전하는 관례가 있었다"며 "몇 년 전부터 심해진 폭염이 공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앞으로 공사비를 보전받을 길이 열리면 대부분 현장의 폭염 안전관리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동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무더운 여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면 정부가 건설업계에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건설기자 kwon89@

## 국도5호선 춘천~화천1~3 다음달 2일 집행

### 주간 입찰동향

#### 조달청, 이번주 3747억 규모 예정

조달청은 이번주(7.30~8.3) 추정가격 3747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43건에 대한 가격개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4건으로, 전체 집행 예정금액의 76%인 2874억원을 차지한다.

최대어는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국도5호선 춘천~화천3 도로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1053억원에 달한다.

이어 원주국토관리청 수요의 국도5호선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841억원, 이하 추정가격)와 국도5호선 춘천~화천2 도로건설공사(511억원)도 같은 방식으로, 이들 3건에 대한 가격개찰은 8월2일 이뤄진다.

또 추정가격 469억원의 '칠북~북면간 도로 건설공사'는 종합평가 낙찰제 방식으로, 오는 31일 가격개찰이 집행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로, 적격심사(31건·868억원)와 수의계약(8건·5억원)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또 이 주에는 전체의 66%인 28건이 지역제한(19건·337억원)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9건·876억원) 대상공사로, 전체의 약 20%인 764억원가량이 지역업체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원주국토관리청 수요의 대형공사 3건이 집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24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 477억원, 경기도 288억원, 전라북도 154억원, 전라남도 120억원, 서울시가 1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토목공사가 8건, 326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축공사(4건·198억원), 전문공사(12건·158억원), 전기공사(9건·49억원), 산업환경(1건·37억원), 정보통신공사(4건·20억원), 소방공사(4건·17억원), 문화재공사(1건·3억원) 순으로 집행된다.

채희찬기자

## 社說

### 폭염도 불가항력의 공기연장 사유다

전국이 찜통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체감 온도 40도를 웃도는 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건설현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반면 빠듯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 안전과 공기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 현장의 공종별 일정은 정해져 있다.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간에 맞춰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를 못 맞추면 징벌적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공기는 곧 돈이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폭염에서는 근로자에게 적당한 휴식을 제공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같은 노동력을 투입해서는 공기를 맞출 수 없다. 주당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무려 16시간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공기를 연장해 주거나 추가 투입인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곳은 없다. 민간공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공기 연장 사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정해져 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첫 번째다. 또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될 경우다. 발주기관 책임의 착공 지연이나 시공 중단도 공기가 연장된다. 여기에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할 때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기연장을 연장해 준다.

폭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다. 하지만 태풍 홍수 지진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해 건설현장의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의 중지를 권고했다.

건설현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공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폭염을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이고 조기 시행을 기대한다.